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매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대상23:1).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솔로몬으로 정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뒤를 잇는 왕으로써 성전 건축을 하게 될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곳에서 봉사하게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많이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나이는 3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지만(민4:3), 다윗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20세 이상부터 섬길 수 있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대상23:24).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는 일에 이토록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임재 하시는 성전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3절은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마는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국가적으로 시행하였고 많은 백성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사유 재산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렸는데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오직 한가지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편 27:4)."

또한 시편 65:4에서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 살게 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이 기뻐하였습니다. 시편 122:1에서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는 고백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을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고 동시에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기대하면서 성전 공사에 필요한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자리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위하여 레위인들의 봉사 연령을 20세로 낮추어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준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23장과 24장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를 20세로 낮추어 놓았지마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들의 임무는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면 성막과 그곳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더 이상 옮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진설병과 무교전병을 굽는 일 그리고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며 또한 회막과 성소의 직무와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은 여전히 감당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레위 사람들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히 3:1, 4:14).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으로 불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을 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더 이상 동물을 죽여 드리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롬 3:25).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는 다른 의무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겨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성전인 우리들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인데 거룩은 구별하는 것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살전 4:7)."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1절에서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가 있는 삶은 우리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대한 칭송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대상 16:4).

하지만 예배가 있는 삶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받는 고난과 환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며 여러 가지 손해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히13:15). 히브리서 13장16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공적인 예배를 포함하여 우리들의 일상

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